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아버지와 아들

성경: 누가복음 1장 26-38절

Tag: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눅1:26-38)

오늘 말씀은 수태고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도 천사를 보내 주신다면 내게도 큰 믿음이 생길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럴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우선 내가 그를 천사로 인식할지가 의문이다.

이미 몇차례씩 천사가 사람들을 방문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를 천사로 대우하거나 과연 천사의 말을 믿었을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조차도 천사의 방문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파악에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독실한 자였으며, 조상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동일하게 독실한 요셉이라는 청년의 정혼녀였다. 정혼이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으로, 어려서부터 혼인하기로 집안끼리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준비된 가정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필요했으며, 그토록 오랜 세월이 필요하신 이유는 인간의 나약한 처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 능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방해요소인지,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정하셨다.

단순히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선택하셨다면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우주 어디에선가는 타락하지 않은 인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상에 생존 중인 인류는 최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만 성령을 부여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뉘우칠 때에만 비로소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지 않고,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선택하셨다. 죽은 영혼의 부활, 즉 새생명의 탄생을 위한 헌신으로 독생자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한 하나님편에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구원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시비에 휘말리거나 핑계댈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구원의 여정을 정하신 셈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열차에 승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순례여행을 떠나야 한다.

아무튼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실 수 없는 이유 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천사를 보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보통사람에게는 영적인 교제방법에 제약이 있다. 일단 보통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이다. 영의 특성상 죽었다고 해서 소멸되는 존재는 아니므로 인류의 문명을 통해서 회생가능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다. 사람마다 영적인것에 대한 생각, 지식, 경험, 언어, 문화가 다양하다. 영적인 것은 둘째로 치고, 그냥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도 언어나 문화나 교육수준이나 가정환경에 따라서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조차 크게 다르다. 심지어 서울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라도 소통에는 문제가 따른다. 식구들조차도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정도다.(황혼 이혼율 증가)

-소통의 부재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악으로 뿔뿔 뭉치는 인류가 아닌 소통 부재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리가 전파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미국 사람도 아니고,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충격적이며, 심지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만 만나지는 천사 경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 할 것이며,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혼란이 클 것이다.

-만약 익숙해 지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며, 사탄은 자신이 천사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딱 좋은 순간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와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는 가장 안성맞춤 거짓말로 그에게 접근할 것이며, 그는 단숨에 이단의 교주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는 천사와의 단순하고 순전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오랜세월 훈련받아야 할 것이며, 물론 그 기간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듯한 세월에 비하면 아주 빠를 것이지만, 결코 만만한 세월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천사와 함께 지내느라 다른 식구들, 친구들, 다른 보편적인 일상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천사와의 대화가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를 깨닫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전혀 모르는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지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잘 알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 경험을 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수많은 기라성같은 선지자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독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절단날 정도로 망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사탄의 공격도 집요하고, 인간의 독선과 무지와 고집도 집요했다. 그런 수천년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 방법도 오래전부터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방법 외에 수많은 다른 구원의 방법을 고안해 내는 마귀에게 속은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듣기에 더 좋아보일 뿐 선악과에 불과할 뿐이다.

선악과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마귀의 말이 더 좋게 들리고, 그 말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오직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은 아무런 쓸데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경건, 그 이상의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를 통한 경건훈련, 천사를 통한 개인교습보다는 꾸준하게 성경말씀을 읽고,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경배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효과적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경건훈련으로 영적인 기능이 향상되었을 때 비로소 천사가 나타나 계시해도 그것이 효과적이고 아무런 탈이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천사는 나타났으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마련 하셨다. 마귀가 그 어떤 교주를 통해서 그럴듯한 구원의 길을 마련한다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이다.

대림절 셋째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땅에 오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경건생활이 더욱 영적으로 뛰어난 경건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기도와 같은 삶      성경: 시편 16편

Tag:

1 [다윗의 므담]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다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16:1-11)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삶의 계획이며, 방향성이며, 해결책이며, 탈출구이며, 정리이며, 계시이며, 영적전쟁이다.

기도따로, 삶 따로는 염불이다.

기도는 삶을 전진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 헤치며, 율법주의를 초월하는 힘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다.

기도는 회개다. 기도는 나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 나의 거짓을 드러내고, 본체에 직면하게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나는 더 나 다워지며, 성숙하고, 암적인 부분을 제거해 나가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다.(로렌스, 프랑스의 평신도 수도사. 신학을 하지 않아 부엌에서 요리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맡았다.)

30년 전쟁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혔으나, 신실한 믿음 덕분에 죽음을 모면하고 수도사가 됨.

-그 부모는 그를 성경말씀으로 양육함.

-그는 나머지의 삶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헌신함.

하나님의 임재연습;일상이 다시금 숨을 쉬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수도 못할 것이다.

“자기는 최악이 관영한 세상 현실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한순간에라도 이런 상황들을 고쳐놓으실 수 있음을 잘 알기에 그런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거져주시는 하나님께 구했다. 그는 다만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지나 않을까 하여 그것만이 늘 조심스러웠을 뿐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 어떤 속임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실 것이다.”

“혹 은혜스럽지 못한 생각이 피어오르거나 유혹이 찾아올 때면,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다. 차분히 기다렸다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 때가 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악한 생각은 즉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른 특별한 시간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때로 저는 제가 조각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한 덩어리의 돌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의 사랑하시는 만아들의 완전한 형상으로 제 영혼을 조각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

로렌스 형제의 미덕이란?, 헨리 나우웬의 기도란?

기도야말로 아주 중요한 실질적 활동이며 기도는 실로 시공을 초월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임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

배와 중보 기도의 습관을 결코 익힐 수 없을 것이다.